

『漢韓大辭典』에 보이는 『論語』 관련 어휘 연구*

崔泰勳**

目 录

1. 序言
 - (1) 研究目的
 - (2) 研究方法
2. 『論語』 관련 어휘 수정보충
 - (1) 語彙項目 수정보충
 - (2) 意味解釋 수정보충
 - (3) 出典例文 수정보충
3. 結言

1. 序言

(1) 研究目的

2008년 여러 연구자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로 32년 만에 『漢韓大辭典』(전체 16권)이 完刊되었다. 본 사전은 檀國大學 동양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작업한 것으로 한자와 한문어휘를 집대성하였다. 그 분량과 내용의 충실함은 다른 사전을 압도함에 틀림이 없다. 대략 5만 5천여 자, 45만여 어휘를 담고 있으며 東洋 最大の 사전임을 자부할만하다. 그 이름만으로도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사전 안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大

*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Y-2013-G)

** 漢陽大學校 人文科學大學 修行人文學部 助教授

型辭典(예: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이 그러하듯 『漢韓大辭典』도 시기적으로 앞서 완성된 사전의 장점과 연구 성과를 기초삼아 향상된 결과를 이루어 냈다.¹⁾

그러나 이러한 『漢韓大辭典』에도 다양한 未備點이 발견되고 있다. 사용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사용하고, 그 내용을 傳達하거나 학술적 根據로 삼을 경우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있다. 또한 『漢韓大辭典』을 상세히 살펴보면, 비록 작지만 一考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은 일반적으로 語彙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論語』와 관련된 어휘에 대해 이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불충분한 내용을 수정보충해보도록 하겠다.

『漢韓大辭典』의 수많은 문제를 작은 논문 한편이라는 제한된 지면위에 낱말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定石대로 한다면 사전의 1권 1페이지부터 차례로 모든 결점을 찾아내어 수정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이와 같은 방대한 작업은 一個人이 해결할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에 우선 연구의 범위를 좁혀 『論語』와 관련된 어휘를 『漢韓大辭典』 안에서 찾아 분석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論語』는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문헌이다. 역대로 많은 이들이 『論語』 속에 보이는 표현을 그대로, 혹은 낱글자의 조합으로 사용하였고, 이것은 후대의 언어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친숙함과 무관하게 『漢韓大辭典』은 『論語』 관련 어휘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앞날의 『漢韓大辭典』의 수정작업에 微力하나마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데 최종의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그 오류의 전달이 여러 학문 분야와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논문의 취지인 것이다.

1) 『漢韓大辭典』 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2) 研究方法

필자는 『漢韓大辭典』 가운데 『論語』와 관련된 어휘 항목에 보이는 未備點을 수정보충하기 위해 몇 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의 방법과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제의 종류를 어휘항목, 의미해석, 출전예문으로 구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한다. 먼저 어휘항목은 『中文大辭典』을 일부 참고하여 『漢韓大辭典』이 언급하지 않은 『論語』 관련 어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둘째 의미해석은 “持扶”와 “有事”에서 보이는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전예문에서는 “致哀”, “篤親”, “菲食”, “山藻”을 분석할 것이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지면의 한계로 모두 소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위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헌과 『漢韓大辭典』 안에서 사용된 용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각각의 항목에 관련된 기타 오류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항목 하나가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동시에 들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설정한 형식(語彙項目, 意味解釋, 出典例文)에 억매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셋째, 일본의 『大漢和辭典』, 대만의 『中文大辭典』, 중국의 『漢語大詞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온 이러한 사전이 동일 語彙項目에 대하여 意味解釋과 出典例證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漢韓大辭典』의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오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漢韓大辭典』은 前代의 사전을 상당 부분 참고한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내에서 ‘제작된’ 『漢語大詞典』과 ‘十三經’의 컴퓨터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에서 타자를 쳐서 만든 것으로 인물이나

어휘 검색에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얻기 어렵겠지만 『漢韓大辭典』이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借用한 부분이 있고, 經典의 내용을 출전예문으로 많이 사용한 관계로 『漢語大詞典』과 ‘十三經’의 한글 판은 필자의 연구 영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四庫全書』가 청대 이후의 문헌 조사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휘가 사용된 문헌을 조사하는 목적이라면 『四庫全書』 컴퓨터판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어휘의 다양한 용례를 보강 한다면, 본 논문에서 언급할 『漢韓大辭典』에 보이는 『論語』 관련 어휘의 수 정보충은 좀 더 구체적인 신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論語』 관련 어휘 修正補充

(1) 語彙項目 수정보충

1) 『中文大辭典』 4권 35쪽을 살펴보면 “怡如”란 어휘항목이 보이고 있다.

【怡如】 怡悅貌。『前言往行錄·清貧宰相』：處之怡如。

이것은 원래 『論語·鄉黨』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出, 降一等, 逞顏色, 怡怡如也。” “怡如”는 “怡怡如”의 축약인 것이다. 그 뜻은 “평화롭고 기쁘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어휘는 『漢韓大辭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²⁾ 반면에 『漢韓大辭典』 12권 518쪽을 살펴보면 『論語·鄉黨』의 다른 문장을 출전예문으로 사용한 “檐如”라는 어휘항목을 발견 할 수 있다.

2) 『中文大辭典』은 “怡如”란 어휘항목을 수록하고 있으나, 『論語·鄉黨』의 출전예문은 누락되어 있다. 『漢韓大辭典』은 어휘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襜如 첨여】 옷자락 끝이 가지런한 모양. 『論語, 鄉黨』 損所與立, 左右手, 衣前後, 襜如也. <朱熹 集注> 襜, 整貌. <錢穆新解> 襜如, 整貌. 衣裳擺動而不亂也. / 宋, 王安石 『送孫正之序』 嗚呼, 予觀今之世, 圓冠峨如, 大裙襜如, 生而堯言, 起而舜趨, 不以孟韓之心爲心者, 果異衆人乎.

위의 두 가지 어휘(“怡如”, “襜如”)는 모두 “형용사+如”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패턴도 일치하고 출전도 일치하는데, “襜如”는 『漢韓大辭典』이 기재하고 “怡如”는 어휘 자체를 언급조차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漢韓大辭典』은 “怡如”란 어휘항목을 새롭게 만들고 『論語, 鄉黨』을 첫 번째 출전예증으로 사용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怡如” 항목에 예문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활용하여 검색을 해보면 “怡如”와 관련된 예문을 『晉書, 王歡傳』에서 찾을 수 있다:

『晉書, 王歡傳』: 王歡字君厚, 樂陵人也. 安貧樂道, 專精耽學, 不營產業, 常丐食誦詩, 雖家無鬥儲, 意怡如也.(왕환은 자가 군후이며, 악릉 사람이다. 안빈낙도하며,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고, 일하지 않고, 항상 빌어 먹고 시를 읊었다. 비록 집은 재물은 없었지만, 마음은 평화롭고 기뻐다.)

『『漢韓大辭典』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재』안에 “출전과 예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출전의 선정은 고문헌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전적으로 하되,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歷代文人들의 詩文 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³⁾ 즉 『晉書』는 正史類로 출전으로 선정되어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論語, 鄉黨』과 『中文大辭典』 “怡如” 항목이 선택한 『前言往行錄』, 『晉書, 王歡』을 순서대로 배열해준다면 나름의 체계화된 출전예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여기서 다른 예를 통해 부연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漢韓大辭典』은 “형용사+如”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論語』 관련 어휘를 많이 수록하고

3) 『『漢韓大辭典』 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있다. 『論語·八佾』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樂其可知也; 始作, 翁如也; 從之, 純如也, 敝如也, 繹如也, 以成.” 여기서 “형용사+如”의 형식을 띤 어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아래는 『漢韓大辭典』에서 “翁如”, “純如”, “敝如”, “繹如”를 조사한 것이다.

【翁如 흡여】 ⊖ 성대한 모양. 『論語·八佾』樂其可知也. 始作, 翁如也. <何晏集解> 翁如, 盛也. ⊖ 잘 어울리는 모양. / 明, 方孝孺 『戴樂和之字說』 視於其身, 慈讓忠信之色睟如, 視於其家, 親睦信順之意翁如. / 清, 李漁 『閒情偶寄, 演習, 授曲』 授曲之人原有深淺二意. 淺者慮其冷靜, 故以發越見長, 深者示不參差, 欲以翁如見好. (11권 154쪽)

【純如 순여】 청(淸) 민낙(閔樂)의 자(字). (10권 1237쪽)

【敝如 교여】 분명한 모양. 『論語·八佾』樂其可知也. 始作, 翁如也. 從之, 純如也, 敝如也, 繹如也, 以成. / 清, 惲敬 『答伊揚州書』 藹如其言, 昱如其光, 敝如其音, 先生視敬有一焉否也. (9권 1224쪽)

【繹如 역여】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양. 『論語·八佾』樂其可知也. 始作, 翁如也, 從之, 純如也, 敝如也, 繹如也, 以成. / <邢昺疏> 繹如也者, 言其音落繹然, 相續不絕也. / 唐, 元稹 『善歌如貫珠賦』 上下其音, 謂低昂於遊女之手, 窈窕遠矣, 徘徊繹如. (10권 1501쪽)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純如” 항목에서만 『論語·八佾』과 관련된 의미해석과 출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中文大辭典』 7권 278쪽을 살펴보면 “純如” 어휘항목에 『論語·八佾』을 언급하고 있다.

【純如】 ⊖和也. 一曰、感人貌. 『論語·八佾』始作翁如也, 從之純如也. 『集解』純如, 和諧也. 『集注』純, 和也. ⊖ 淸, 閔樂之字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漢韓大辭典』 10권 1237쪽을 살펴보면 『中文大辭典』 의미해석의 ⊖ 번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다: “淸 閔樂의 字.” 『論語·八佾』과 관련된 ⊖번에 대한 해석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漢韓大辭典』의 오류인 것이다. 마땅히 『中文大辭典』의 내용을 참고 하여 수정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2) 『中文大辭典』10권 633쪽을 살펴보면 “鮮仁”이란 어휘항목이 보이고 있다.

【鮮仁】寡仁德也。『論語·學而』：子曰，巧言令色，鮮矣仁。

이것은 『大漢和辭典』12권 745쪽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鮮仁”은 “鮮矣仁”의 축약이 된다. 그 뜻은 “仁이 드물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어휘는 『漢韓大辭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항목은 마땅히 『漢韓大辭典』에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文大辭典』, 『大漢和辭典』과 같은 방식으로 『論語·學而』의 출전만을 사용한다면, 본 어휘가 후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이에 필자는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활용하여 “鮮仁”이 사용된 용례를 검색해 보았다. 宋 梅堯臣의 『乞巧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辭之巧, 不過多辯言. 使爾多言多辯, 則鮮仁而行遺.(말의 아름다움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다언다변을 쓴다면 즉 인이 드물며 잘못하는 것이다) 이어서 明代 顧璘의 『開封告山川社稷禱雨文』의 첫 문장을 살펴보아도 “璘懈職鮮仁(린은 일에 게으르고 인하지 않다)”이란 구절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漢韓大辭典』은 “鮮仁” 어휘항목을 수록해 주고 『論語·學而』, 『乞巧賦』, 『開封告山川社稷禱雨文』을 순서대로 출전예문으로 사용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意味解釋 수정보충

1) 『漢韓大辭典』5권 1194쪽의 “持扶”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持扶 지부】 붙잡아줌. 부족함. 『兒女英雄傳, 35回』 那位神道倒隨在身後, 還持扶著他一同出門而去.

위의 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째, “붙잡아줌”과 “부

축함”의 국어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붙잡아줌”은 “붙잡다”에서 나온 말로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거나 도와주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⁴⁾ 반면 “부축”은 “거드랑이를 붙잡아 걷는 것을 도움”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 두 가지는 “持(붙잡다)”와 “扶(부축하다)”의 낱글자를 각각 해석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漢韓大辭典』이 “붙잡아줌, 부축함.”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持(붙잡다)”와 “扶(부축하다)”를 합쳐 “붙잡아주고 부축함”으로 연이어 풀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풀이는 육체적 접촉을 전제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해석인 것이다. 高麗大學校 『中韓辭典』599쪽을 참고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扶持】(동) ① 부축하다. 「傷員們互相扶持着練習走路; 부상자들이 서로 부축하면서 걸음을 연습하다.」② 돕다. 보살피다. 「扶持到底; 끝까지 보살피다」

위의 “扶持”⁵⁾(“持扶”가 아님)의 의미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부축하다. 「부상자들이 서로 부축하면서 걸음을 연습하다.」”로 적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 접촉이 전제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② 돕다. 보살피다. 「끝까지 보살피다」”는 물리적 접촉과는 무관한 의미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漢韓大辭典』 “持扶” 항목에 “돕다. 보살피다.”라는 풀이가 없다는 점은 의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 것이다.

둘째, “持扶”는 『論語, 季氏』편 “危而不持, 顛而不扶”란 구절에서 원류를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붙잡다”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아래 7번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 2) 달아나지 못하게 잡다. 3) 떠나지 못하게 말리다. 4)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잡다. 5) 일자리를 얻다. 6) 일거리를 삼거나 일을 시작하려고 손을 대다. 7)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거나 도와주다.
- 5) 필자가 高麗大學校 《中韓辭典》의 예를 든 이유는, 비록 “부축하다”와 “돕다. 보살피다”가 의미상 유사해 보이지만 사전에서는 엄밀히 구분해주는 것이 하나의 모범사례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찾을 수 있다: “孔子曰 求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顛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이것에 대한 『論語集釋』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餘論】 如舜之相堯, 禹之相舜, 伊尹相湯, 周公相武王. 豈皆替者之相耶. 舊說相謂輔相, 言其輔相人者, 當持其主之傾危, 扶其主之顛覆.(예를 들어 순은 요를 보좌했고, 우는 순을 보좌했고, 이윤은 탕을 보좌했고,周公은 무왕을 보좌했다. 어찌 모든 것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겠는가? 옛말에 相은 정사를 보좌한다는 말이다. 그 정사를 보좌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주인의 붕괴를 견디어 내게 하고, 그 주인의 곤란함을 돕는다)

위 글의 요지는 “相”이 항상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정사를 보좌한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⁶⁾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危而不持, 顛而不扶”를 해석해보면 “나라가 위태로운데 돕지 못하며, 국가가 넘어가는데도 보살피지 못하다”로 풀이가 가능하다. 즉 “持扶” 어휘항목에는 “붙잡아주고 부축함”이란 풀이 이외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라는 의미해석을 추가해주어야 한다.

필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宋代의 문헌인 『冊府元龜』 卷10에서도 “持扶”가 보이고 있다.

大業道喪, 皇極如毀, 傾維折柱, 天下分離, 塗炭納隍, 黔黎殆盡. 顧茲九有, 鋒鏑縱橫, 靜念持扶, 計無所出.(대업의 도는 상실되고, 황제는 없는 것과 같았다. 기울어져 꺾인 기둥에 (간신히) 의지하듯, 천하는 나뉘고, (백성은) 도탄과 재해에 빠져, 백성의 위태로움이 다함에 이르렀다. 더욱이 천하를 돌아보니, 전쟁이 횡횡하였다. (이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방법을 깊이 생각했으나, 계략이 나오질 않았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持扶”가 물리적 접촉에 의한 “붙잡아주고 부축함”

6) 『漢韓大辭典』 10권 43쪽의 “相”을 살펴보아도 “장님을 인도하는 사람” 이외에 “돕다. 보좌하다”, “입금을 보좌하여 정사를 펴는 百官의 우두머리. 후대에는 宰相을 이른다.”라고 적고 있다.

으로만 해석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漢語大詞典』 6권 549쪽을 살펴보면 “持危扶顛”을 어휘항목으로 설정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

【持危扶顛】扶持危殆局面. 語本 『論語·季氏』：“危而不持，顛而不扶.”……

본 항목을 살펴보면, 『漢語大詞典』는 『論語, 季氏』의 “危而不持, 顛而不扶”가 “持危扶顛”의 원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語本 『論語·季氏』).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持扶”도 『論語, 季氏』 “危而不持, 顛而不扶”에서 시작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漢韓大辭典』 “持扶” 항목에도 “위태로운 국면을 돕다”란 의미해석이 추가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물리적으로) 붙잡아주고 부축함”과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돕는다”로 설정한다. 둘째, 각각의 의미항목에 합당한 출전예문을 추가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2) 『漢韓大辭典』 6권 993쪽에 보이는 “有事”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有事】 1. =有司(벼슬아치). 『書·酒誥』 文王誥教小子, 有正有事, 無彝酒. <孔傳> 事, 謂下羣吏. <孔穎達疏> 正官下治事之羣吏. 『詩·小雅·十月之交』 皇父孔聖, 作都于向. 擇三有事, 亶侯多藏. <毛傳> 擇三有事, 有司, 國之三卿. 2. 일삼아서 함. 종사(從事)함. / 明, 李贄 『復京中友朋書』 若其他弟子, 則不免學夫子之不厭而已, 學夫子之不倦而已, 畢竟不知夫子之所學爲何物, 自己之所當有事者爲何事.

『論語·季氏』의 첫 번째 문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季氏將伐顛與.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顛與.” 여기서의 “有事”에 대해 『論語』 한국어 번역본은 대부분 “일을 벌이려 하다”로 해석하고 있다.⁷⁾

7)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7年) 326쪽. 李基東 譯解 《論語講說》(서울: 성균관대학출판부, 1999年) 455쪽. 기타의 해석본을 찾아보아도 “일을 벌

그러나 『漢韓大辭典』의 의미해석을 『論語·季氏』에 적용해본다면, 1번(벼슬아치), 2번(중사함)의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有事”의 의미해석 항목에 “일을 벌이려 하다”를 추가해 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漢韓大辭典』의 의미해석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事”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左傳·成公十三年』을 살펴보면 “國之大事，在祀與戎(국가의 대사는 제사와 전쟁)”이라 적고 있다. 『論語·季氏』의 “有事”는 “戎”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論語·季氏』에서의 “有事”는 “정벌하다”, “침범하다”, “전쟁을 일으키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는 『史記·張儀列傳』에서도 보이고 있다: “有事，秦將輕使重幣，事君之國” 본 문장의 “有事”에 대해 『索隱』은 “謂山東諸國共伐秦也(산동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진을 정벌함을 말한다)”, 『正義』는 “有事，謂六國攻秦.(유사는 육국이 진을 공격함을 말한다)”이라 적고 있다.⁸⁾ 또한 『漢書·吾丘壽王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安居則以制猛獸而備非常，有事則以設守衛而施行陣.(편안하게 살 때에는 맹수를 제압하는 것으로서 비상시를 준비해야 하며, 전쟁이 발생할 때에는 수위를 설치함으로써 행진을 펴야 한다)” 이러한 예들을 종합해 보면 “有事”에는 “정벌하다”, “침범하다”, “전쟁을 일으키다”의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가의 “대사(大事)”에는 “전쟁”도 있지만 “제사”도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필자는 이에 『四庫全書』 컴퓨터판을 활용하여 “有事”가 “제사지내다”로 쓰인 용례를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左傳·宣公』을 보면 “有事於太廟”라 적혀 있다. 상식적으로 太廟에서 전쟁이 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마땅히 “제사지내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또한 『後漢書·光武帝紀下』를 보면 “遂有事十一陵. 李賢注: 有事，謂祭也(마침내 십일릉에 제사지내다. 이현이 주석하길 유사는 제사지내음을 말한다).”라 풀이하고

이러 하다”가 일반적인 해석으로 나와 있다.

8) 司馬遷 撰,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列傳一》(臺北: 天工書局印行, 1990年) 3927쪽.

있다. 나아가 『晉書. 武帝紀』에도 『左傳. 宣公』과 비슷한 문장이 보이고 있다: “帝將有事於太廟(황제가 장차 태묘에서 제사지내려 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漢韓大辭典』 “有事” 항목에는 첫째, 『論語. 季氏』를 출전예문의 필두로 하는 “정벌하다”, “침범하다”, “전쟁을 일으키다”의 의미해석을 보충해 주어야하고, 둘째, 『左傳. 宣公』을 첫 번째 출전예문으로 하는 “제사지내다”란 의미해석도 추가해 주어야 한다.

(3) 出典例文 수정보충

1) 『漢韓大辭典』11권 625쪽의 “致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致哀 치에】 애통한 정을 다함. 또는 지나치게 슬퍼함 『後漢書, 明帝紀』 喪貴致哀, 禮存寧儉. / 南朝宋 劉義慶 『世說新語, 賞譽』 弘治至嬴, 不可以致哀.

필자가 보기에는 『漢韓大辭典』 “致哀” 항목의 出典例文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출전의 선정은 고문헌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전적으로 하되,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歷代文人들의 詩文 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⁹⁾ 그러나 사전이 선정한 출전이 後代의 것으로 판명되고, 그 보다는 훨씬 시간적으로 앞선 經傳類, 諸子百家類, 正史類, 詩文 가운데에 동일한 의미항목이 보이는 문헌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봉착했을 때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은 다른 대형사전을 찾아 참고해 보는 것이다. 『中文大辭典』 7권 1210 쪽 “致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9) 『漢韓大辭典』 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8쪽.

【致哀】 極其哀痛也。『論語, 子張』: 喪致乎哀而止。『集注』: 致極其哀, 不尙文飾也。『後漢書, 明帝紀』: 喪貴致哀。

『中文大辭典』은 『論語, 子張』에서 보이는 “喪致乎哀而止”를 예문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致哀”라는 어휘의 시작이 『後漢書, 明帝紀』가 아니라 『論語, 子張』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漢韓大辭典』과 같이 『後漢書』를 첫 번째 출전으로 사용한다면 “致哀”라는 어휘의 語源이 『後漢書』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致哀”가 “致乎哀”에서 시작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大漢和辭典』(9권 428쪽)도 『中文大辭典』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漢韓大辭典』은 기존의 臺灣과 日本의 대형사전을 참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사전과 관련된 설명을 살펴보면 『中文大辭典』과 『大漢和辭典』 등 前代의 사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검증 절차도 없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漢韓大辭典』 12권 1054쪽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주장에 도움을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謹信 근신】 1. 정중하고 믿음성이 있음. 예의바르고 성실함. 『論語, 學而』 謹而信, 汎愛衆. <邢昺疏> 言恭謹而誠信也. 『後漢書, 臧宮傳』 宮以謹信質樸, 故常見任用. / 唐, 黃滔 『司直陳公墓志銘』 公爲人謹信, 居家純孝. 2. 정중하게 맹세하여 신임을 나타내 보임. 『穀梁傳·僖公5年』 盟者, 不相信也, 故謹信也.

『漢韓大辭典』은 “謹信” 항목에서 『論語, 學而』의 원문 “謹而信”을 확인하고 첫 번째 출전예문으로 배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邢昺의 설명을 보아도 “謹而信”을 “恭謹而誠信”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謹”과 “信”을 구분하여 말한 것

10) 『漢韓大辭典』 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 12쪽.

이다. 이것이 후대에 와서 “謹信”이라는 한 단어로 정착한 것이다. 이렇듯 그 원류를 찾아 『論語』를 첫 번째 출전으로 선택한 『漢韓大辭典』 “謹信” 항목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同一 『漢韓大辭典』 내에서 “謹信”은 『論語』를 쓰고 “致哀”는 『論語』를 출전예문으로 사용하지 않은 현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한 사전 안에서 『論語』를 기반으로 시작된 어휘를 다루는 방법에 형평성이 없으며, 통일성이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아쉬운 점은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다. 『漢韓大辭典』 “致哀”에서 사용된 출전은 두 가지 모두 南朝 宋때의 작품이다. 각각의 作者 역시 생졸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 范曄(398-445)의 『後漢書』와 劉義慶(403-444)의 『世說新語』는 거의 동일시대의 인물의 작품인 것이다. 이와 같은 나열은 사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본보기이다. 반면에 “謹信”의 출전예문은 상대적으로 좋은 예를 보이고 있다. 『論語』(春秋戰國), 『後漢書』(南朝宋, 范曄), 『司直陳公墓志銘』(唐, 黃滔) 순으로 조대를 구분하여 앞선 시기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전의 예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당 어휘의 각 시대별 사용 흐름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항상 조대별로 차례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시대의 작품을 나열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漢韓大辭典』 내에서 “致哀”가 사용된 다른 예문을 찾아보았다. 9권 759쪽 “甥館”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문이 보이고 있다: “宋, 陳亮 『祭葉正則外母高恭人翁氏文』 恭人甥館, 第一輩人. 亮忝交久, 義同弟昆. 一奠致哀, 詎曰無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漢韓大辭典』 “致哀” 항목은 『論語, 子張』, 『後漢書, 明帝紀』, 『祭葉正則外母高恭人翁氏文』 등의 순서로 출전예문을 배열하는 것이 시대 순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出典의 미비점은 가장 일반적이고도 대표적인 사전의 잘못된 것이다.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있을 사전의 수정 작업을 고려한다면 기억해두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2) 『漢韓大辭典』10권 1030쪽의 “篤親”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篤親 독친】 친족을 도탑게 대함. 『資治通鑒, 齊武帝永明5年』[高允]篤親念故, 無所遺棄. 清, 侯方域 『明東平州太守常氏墓誌銘』 司徒自篤親, 我自守己.

여기서는 두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이고 있다. 첫째, “篤親”은 본래 『論語, 泰伯』에서 유래되고 있다: “君子篤於親, 則民興於仁. 故舊不遺, 則民不偷.” 앞서 언급한 “致乎哀”를 상기해 본다면 “篤於親”이 “篤親”의 출발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資治通鑒』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篤親”이 “篤於親”에 해당하고, “念故”는 “故舊不遺”에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資治通鑒』도 『論語, 泰伯』에서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따라서 『論語, 泰伯』을 첫 번째 출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더불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資治通鑒』으로 적혀진 출전예문이다. 이것은 사실 『魏書, 高允傳』에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주지하다시피 『魏書』는 南北朝時代 北齊의 魏收가 편찬한 史書로 北魏의 역사를 서술한 二十四史 가운데 하나이다. 즉 宋代 司馬光이 1065-1084년에 걸쳐 편찬한 『資治通鑒』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또한 『魏書』는 “正史類”에 해당하며, 출전으로 선택되어질 자격이 충분한 문헌인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출전을 언급하려면, 『資治通鑒』 보다는 마땅히 『魏書, 高允傳』을 택해서 적어 주어야 한다. 만약 宋代의 예문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漢韓大辭典』(6권 558쪽)의 “旁期” 항목에 보이는 歐陽修, 宋祁 등이 편찬한 『新唐書』의 예문을 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揚, 伯禽子, 季氏遠祖, 尚不爲限, 況天子篤親親以及旁朞, 誰不曰然”¹¹⁾

3) 『漢韓大辭典』11권 931쪽의 “非食”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본 예문은 『新唐書, 儒學傳下, 陳貞節』에 보이고 있다.

【菲食 비식】 거친 음식. 변변찮은 음식. 晉, 陸機『辨亡論, 下』 卑宮菲食, 豐功臣之賞. / 明, 宋濂『故集賢大學士吳公行狀』 惡衣菲食, 或不能繼, 凡曆二十有六年.

“菲食”이란 어휘 역시 『論語, 泰伯』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다: “禹, 吾無間然矣. 菲飲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그러나 『漢韓大辭典』은 그 원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필자가 『中文大辭典』(7권 1628쪽)에서 “菲食”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論語, 泰伯』의 문장을 인용하여 첫 번째 출전예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陸機『辨亡論』의 예문은 두 번째로 배열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다른 대형사전과의 비교가 아쉬운 부분인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漢韓大辭典』의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였다. 다음은 『漢韓大辭典』 2권 885쪽 “卑宮菲食” 항목의 내용이다:

【卑宮菲食 비궁비식】 궁실은 작게 짓고 음식은 조촐하게 먹음. 조정이 검약하게 생활하는 것을 칭송할 때 이르는 말. 卑宮, 卑室. 『論語, 泰伯』 禹, 吾無間然矣. 菲飲食, 而致孝乎鬼神. 惡衣服, 而致美乎黻冕. 卑宮室, 而盡力乎溝洫. 晉, 陸機『辨亡論, 下』 卑宮菲食, 以豐功臣之賞, 披懷虛己, 以納謨士之策. 唐 羅隱『讒書, 子高之讓』 子高且欲挾禹之心而謹其取也, 故讓之. 厥後有卑宮菲食之政.

“卑宮菲食”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論語, 泰伯』을 첫 번째 출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菲飲食”과 “卑宮室”로 적고 있으며, “卑宮菲食”으로 연이어 쓰고 있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菲食” 항목이 선택한 출전과는 차별적으로 『論語, 泰伯』을 첫 번째 예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의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菲食”에서도 『論語, 泰伯』을 똑같이 사용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이 미흡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論語, 泰伯』의 내용을 살펴보면 “惡衣服”이란 표현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惡衣惡食”(5권

589쪽)이란 어휘가 만들어져 수록되어 있다.

【惡衣惡食 악의악식】=惡衣菲食. 『論語, 里仁』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 宋, 王安石『永安縣太君蔣氏墓志銘』 惡衣惡食, 御之不愠.

정리하면 “卑宮菲食”, “惡衣惡食”에서는 『論語』가 첫 번째 출전으로 사용되었고, “菲食”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菲食” 항목은 『論語, 泰伯』을 첫 번째 출전예문으로 사용해야만 사건의 통일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論語』(春秋戰國), 『梁書』(唐), 『新唐書』(宋)로 이어지는 출전의 시간적 배열에도 짜임새가 있게 된다. 『漢韓大辭典』의 수정판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불일치는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4) 『漢韓大辭典』 4권 764쪽 “山藻”, 10권 1018쪽 “節稅”, 4권 763쪽 “山節藻稅”, 11권 1286쪽 “藻稅” 4가지 항목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山藻 산조】 화려하고 사치한 집. ⇒ 山節藻稅. 『文選, 任昉, 齊竟陵文宣王行狀』 華袞與縑糸著同歸, 山藻與蓬茨俱逸. <張銑注> 山藻, 華屋也.

첫째, “山藻”(4권 764쪽)는 원래 『論語, 公冶長』의 문장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臧文仲居蔡, 山節藻稅, 何如其知也.” 『漢韓大辭典』은 “山藻” 항목에서 『論語, 公冶長』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山節藻稅” 네 글자만을 출전 없이 기록하고 있다. 반면 『中文大辭典』(3권 863쪽)의 “山藻”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山藻】刻山之節也. 節, 柱頭門栱. 又, 謂華屋. 『論語, 公冶長』: 臧文仲居蔡, 山節藻稅. 『集注』: 節, 柱頭門栱也. 藻, 水草名. 稅, 梁上短柱也. 蓋爲藏龜之室, 而刻山於節, 畫藻於稅也. 『文選, 任昉齊竟陵文宣王行狀』: 山藻與蓬茨俱逸. 『注』: 銑曰: 山藻, 華屋也.

『中文大辭典』은 『文選』 앞에 『論語, 公冶長』의 예문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大漢和辭典』(4권 195쪽)도 『中文大辭典』과 같은 패턴으로 『論語, 公冶長』의 예문을 적어 놓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漢韓大辭典』의 “山藻” 항목은 보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땅히 『論語』를 출전예문으로 선택하여 본 어휘의 원류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둘째, “山節藻稅”의 “節”과 “稅” 자만을 분리한 “節稅”(10권 1018쪽)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하여 『漢韓大辭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節稅 절절】 두공(料枳)과 동자기둥. /唐, 柳宗元 『邕州柳中丞作馬退山茅亭記』 冬十月, 作新亭於馬退山之陽, 因高丘之阻以面勢, 無榑櫨節稅之華也. <集注>: 節者, 榑也, 刻鏤爲山; 稅者, 榑上楹, 畫爲藻文. /清, 朱之瑜 『十宮圖序』 金釭玉帶, 翡翠文犀, 節稅縣楣, 空青祖瑤.(10권 1018쪽)

주지하다시피 “節”은 크게 지은 목조 건물의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稅”은 들보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論語』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漢韓大辭典』은 “節稅”에서도 『論語』를 출전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大漢和辭典』과 『中文大辭典』은 공통적으로 『論語』를 예문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論語』가 “節稅”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¹²⁾

셋째, 이러한 논증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필자는 『漢韓大辭典』이 “山節藻稅”(4권 763쪽)이란 4글자의 어휘 항목에서는 과연 어떠한 출전예문을 사용했는지 궁금해졌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山節藻稅 산절조절】 천자의 종묘에 쓰는 장식. 산절은 산 모양을 새

12) 『大漢和辭典』: 節と稅. 節は柱上の升形, 稅は梁上の短柱. 『論語, 公冶長』 臧文仲居蔡, 山節藻稅. 『柳宗元, 邕州馬退山茅亭記』 無榑櫨節稅之華也. (8권 820쪽)

『中文大辭典』: 節與稅也. 節, 柱上之升形木; 稅, 梁上之短柱. 『禮記, 禮器』 管敬仲山節而藻稅. 『論語, 公冶長』 臧文仲居蔡, 山節藻稅. 『柳宗元, 邕州馬退山茅亭記』 無榑櫨節稅之華也. (7권 78쪽)

긴 두공, 조절은 마름 무너를 그려 넣은 들보 위의 동자기둥. 짐이 호화롭고 사치하여 분수에 넘침을 이르는 말로 쓴다. 『禮記, 明堂位』 山節藻稅……天子之廟飾也. <鄭玄注> 山節, 刻構虛爲山也. 藻稅, 畫侏儒柱爲藻文也. 『論語·公治長』 臧文仲居蔡, 山節藻稅. <何晏集解> 包咸曰, 言其奢侈. / 漢, 荀悅 『漢紀, 文帝紀 上』 及至周室道衰, 禮法隳壞, 諸侯刻桷丹楹, 大夫山節藻稅.

“山節藻稅”에 대한 『漢韓大辭典』의 출전은 앞의 “山藻”와 “節稅”과는 확연히 다르게 『論語』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漢韓大辭典』 “山藻”, “節稅” 항목에서도 『論語』를 쓰는 것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다. 다만 『禮記』를 첫 번째 출전예증으로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禮記』의 작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가운데 공자가 편찬하였다는 것이 一說로 알려져 있다.¹³⁾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공자의 제자가 만들었다는 『論語』에 비해서는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 위의 출전 배열은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禮記』의 공자 편찬설은 정설이라 할 수 없으며,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진 두 문헌을 불필요하게 차례로 배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禮記』를 『論語』 앞에 배치하는 것은 재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넷째, “山節”과 “藻稅”(“山藻”와 “節稅”이 아님)의 독립 어휘항목 설정 유무를 살펴보겠다. 『中文大辭典』은 “山節”과 “藻稅”을 각각 독립항목으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3권 857쪽, 8권 210쪽) 더욱이 이 어휘들은 예외 없이 『論語·公治長』을 출전예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漢韓大辭典』은 “藻稅”(11권 1286쪽)에 대해서만 따로 분류하여 언급하였고, “山節”은 독립 어휘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山節”, “藻稅”, “山藻”, “節稅”, “山節藻稅” 등의 어휘항

13) <http://baike.baidu.com/view/73645.htm>: “《禮記》的作者不止一人, 寫作時間也有先有后, 其中多數篇章可能是孔子的七十二名高徒弟子及其學生們的作品, 還兼收先秦的其它典籍.” 공자가 편찬하였다는 것은 일설이며 일반적으로는 그 제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목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았다. 앞으로 『漢韓大辭典』의 개정판이 나온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일관되게 『論語·公治長』을 출전예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각각에서 보이는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結言

필자는 본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漢韓大辭典』에서 보이는 『論語』 관련 어휘를 語彙項目 수정보충, 意味解釋 수정보충, 出典例文 수정보충으로 카테고리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그 대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語彙項目 수정보충”에서는 『漢韓大辭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論語』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먼저 “怡如”는 “형용사+如”의 형식을 갖춘 어휘이며 “檐如”, “翁如”, “純如”, “皦如”, “釋如” 등의 예와 비교해보면 『漢韓大辭典』에 보충 기재해 주어야 타당한 의미항목임을 밝혔다. 또한 “鮮仁”은 『中文大辭典』에 『論語·學而』를 출전으로 삼아 수록되어 있는 어휘이며, 이것 역시 『漢韓大辭典』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임을 언급하였다.

둘째, “意味解釋 수정보충”에서는 우선, 『漢韓大辭典』 “持扶”의 풀이가 미흡함을 서술하였다. 즉 의미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물리적으로) 붙잡아주고 부축함”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有事” 항목에서는 기존의 의미해석에 “정벌하다”, “침범하다”, “전쟁을 일으키다”와 “체사지내다”란 의미를 더해주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出典例文 수정보충”에서는 『漢韓大辭典』에 기재되어 있는 어휘 가운데 起源이 『論語』임에도 불구하고, 『論語』를 출전예문으로 채택하지 않은 “致哀”, “篤親”, “菲食”, “山藻”를 소개하고 미비점 분석을 하였다. 이 가운데 “菲食”은 그 내용을 확대하여 “卑宮菲食”, “惡衣惡食”과 비교하여 『漢韓大辭典』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한 “山藻”의 경우는 “山節藻稅”에서 시작

된 어휘로서 “藻稅”, “山藻”, “節稅” 등에서의 『論語』 출전에문 언급유무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는 前代의 여러 사전을 참고함에 부주의한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것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한국어 표현상의 정확한 규칙과 원칙의 부재로 말미암은 문제도 있었다. “結言”에서는 지면의 제한과 논증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상세한 서술은 피하겠다.

미루어 짐작컨대 『漢韓大辭典』의 다른 항목에서도 다수의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후학들의 의무이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인 것이다. 이에 위에서 살펴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미 사전연구의 방향을 제시 한 적이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意味解釋의 문제를 나름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처럼 오류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연구의 작은 범위를 설정하여 『漢韓大辭典』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論語』 관련 몇 가지 어휘항목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문헌의 선택을 통해 사전의 미비점 해결의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漢韓大辭典』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그 문제를 규명해 나가는 것은 옳은 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一個人이 사전의 약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같은 사전의 수정작업은 文化史, 文學史, 文獻學, 文字學, 言語學 등 모든 학문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즉 여러 전공분야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지속적 연구와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協業은 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漢韓大辭典』의 수정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를 통해 여타 학문의 학술적 진전과 학문적 영역 확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參考文獻

-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7年
李基東 譯解 『論語講說』, 서울: 성균관대학출판부, 1999年
『「漢韓大辭典」刊行記-30년 大長征을 마치며』, 서울: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8년)
程樹德 撰 『論語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7年
劉寶楠 撰 『論語正義』, 北京: 中華書局, 1992年
司馬遷 撰, 瀧川資言 考證 『史記會注考證』, 臺北: 天工書局印行, 1990年
吳金華 著, 『古文獻整理與古漢語研究』,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1
朱熹 撰, 『四書章句集注, 論語集注』, 北京: 中華書局, 1996年
- 『漢韓大辭典』, 서울: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2008年
『中韓辭典』,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 2002年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年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民國82年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59年

Abstract

A Study of Related Words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Choi, Tae-hoon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blems with words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Lun Yu)』 presented in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The author classifies them into three: some errors of 1) meanings, 2) meaning interpretations, and 3) example sentences. First, the problems with the meanings are examined with the focus of words used in Lun Yu but not presented in the dictionary. The word, “yiru” is made up of “an adjective + ru” and if compared with the cases of “chanru”, “xiru”, “chunru”, “jiaoru”, “yiru”, it is clear that the word should be added. In addition, the word, “xianren” is included in the Chinese Great dictionary derived from 『lunyu』 and this word should also be on the list. Second, the interpretation of “chifu” is insufficient. Namely, the following meanings can be supplemented: “physically holding and assisting” and “in the nation’s difficult times, persisting and helping.” Additionally, the meaning interpretations of “youshi” should be extended to “subjugating,” “invading,” “initiating a war,” and “performing ancestral ceremonies.” Third, the dictionary does not include the origin of some words in the example sentences for “zhiai”, “duqin”, “feishi”, and “shanzao.” The meaning “feishi” was especially narrowly presented if extended meanings such as “beigongfeishi”, and “eyieshi” are considered. Furthermore, as to “shanzao” the author argues it was derived from “shanjiezaozhuo” and examines carefully whether the example sentences about “zaozhuo”, “shanzao”, or “jiezhuo” as part of Lun Yu are mentioned in the dictionary. Finall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suggestions

for the appropriate error correction.

Key words : 『The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lunyu』, error correction, “zhiai”, “yiru”, “chifu”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